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정신적 스승'

미래대학리포트 2015

방누리 기자 nurib423@knu.ac.kr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에 열린 개교 기념행사에서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2015'가 발표됐다. 발표를 맡은 유정완(영어학) 교수는 "개교 65주년과 '경희백년 미래 메시지' 50주년을 맞아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 현재 우리대학의 모습은 어떠하고 미래 우리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미래대학리포트에서 도출된 정책을 앞으로 전 세계 유관 기관과 함께 고등교육 혁신운동으로 확산시켜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미래대학리포트를 총 15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여 소개했다.

특히 이 날이 스승의 날이었기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 관한 문제가 더욱 눈에 띄었다. 더불어 교수와 학생 간 유대감 문제는 우리 신문에서도 이전에 언급된 바가 있어 이에 주목해 봤다. <교수·학생,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 2011.04.29. 1489호>에서 교수·학생 상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59%는 교수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혁(식품영양학) 교수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업 전에 학생 이름과 출석부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며 얼굴을 외운다"며 "좀 더 다가가기 위해 학생들을 만나면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본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예전에는 캠퍼스에 '스승과 제자'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요즘 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밖에 안 보인다"며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대한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그는 "교수님들 일이 워낙 많고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워져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40여 년 전에도 (대학 속에 훈도가 있다-교수, 학생 간의 대화를 넓히자 1978.03.27. 627호)와 같은 기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우리학교에서 강의한 지 올해로 39년째인 박신자(호텔경영학) 교수는 "한마디로 얘기하긴 힘들지만 예전엔 졸업 후에도 학생과 교류가 많았던 반면 요즘은 학생들이 대학을 스쳐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애교심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섭섭해 했다. "그래도 좋은 점은 학생들이 젊은이답게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솔직하고 어려움 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학교에서

37년째 강의하는 이원(화학) 교수는 교수와 학생 사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학생들이 교수를 생각할 때 약간의 거리감을 갖고, 교수는 의해 학생들이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인데 내 경우는 심하게 느끼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단적으로 차이를 얘기하기 애매하다"며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수를 어려워했지만 함께 교정을 거닐거나 애오에 가거나 대화하는 등 강의 외적인 접촉의 기회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외국 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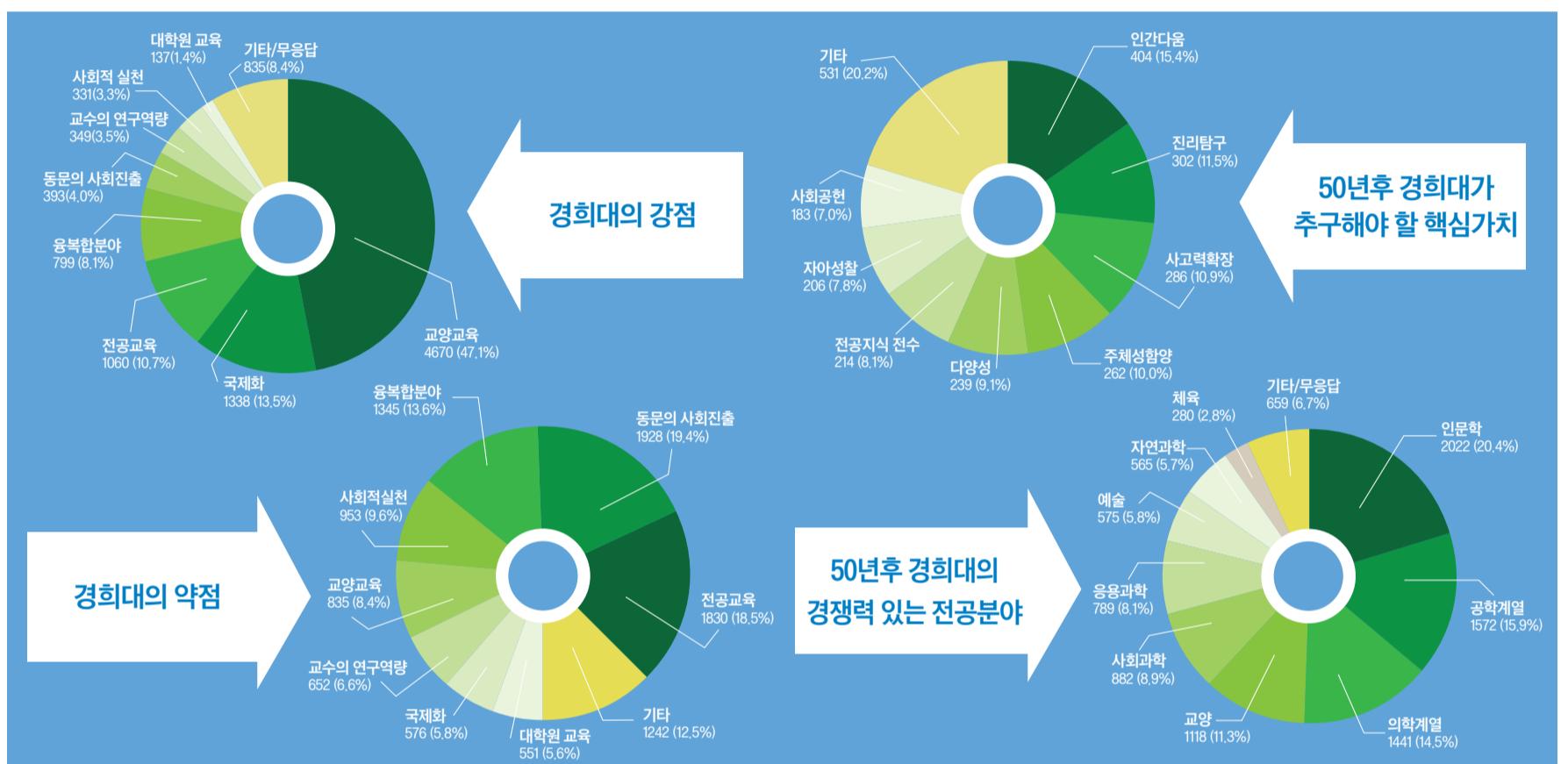
습은 어떠할까. 이에 대해 김현정(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미국 대학의 경우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점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교수가 아닌 이름을 부른다며 "교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보니까 거리감이 없고 교수 역시 권위적이지 않아 복장이 편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각각한 건 맞으나 좋은 점도 있다"며 "외국의 경우 교수와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떠자려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함부로 하는 게 있단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열세 번째 키워드인 경희대학교의 약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동문의 사회진출' 문제도 우리 신문에서 이전에 언급된 바가 있다. <취업 중심> 경계하지만 사회진출 대책도 절실 2014.09.14. 1574호>의 기사에서 "우리대학은 교육의 결과물로서의 취업과 진학을 애써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낮은 취업률,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성 일깨워 2013.09.07. 1548호>에서 "구성원에 경쟁력을 보태고 사회에는 신뢰를 심는 '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

라고 말하며 교육에서 취업까지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말하는 미래대학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대학이 바뀌어야 세계가 바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혁신, 바람직한 스승상, 사회진출 프로그램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함이 제기됐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이 비교적 정확하다며 대학본부와 교수사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점 역시 이번 리포트가 주는 함의이기도 하다.

미래대학리포트 15가지 키워드 한눈에 보기			
1 내가 추구하는 가치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행복(39.5%)	
2 남북통일	예상하는 통일 한국의 지위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34%)	
3 평생 직업	50년 후, 한 사람�이 평생 갖는 직업의 개수?	2~3가지(63.7%)	
4 한국 사회의 문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와 50년 후 직면할 문제?	현재: 빈부격차(34.5%), 50년 후: 고령화(21.8%)	
5 인류의 갈등요인	현재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국가 간 부의 양극화(25.8%)	
6 제3의 혁명	제3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지식정보(49.9%)	
7 평화 세계 시민 사회	50년 이내 평화로운 세계 시민 사회가 건설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92.2%)	
8 존경받는 인간형	미래에 가장 존경받는 인간형?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36.4%)	
9 대학에 다니는 이유	현재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대비(34.3%) 학벌(21.8%) 학문탐구(18.9%)	
10 미래대학 가치	미래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아성찰(19.1%) 진리탐구(14.1%)	
11 미래대학 교수상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26.5%)	
12 "나는 경희인이이다"	현재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매우 그렇다(8%) 그렇다(50%) 보통이다(32%)	
13 경희대 강점	경희대학교의 강점은 어떤 부문에?	교양 교육(47.1%)	
14 경희대 약점	경희대학교의 약점은 어떤 부문에?	동문의 사회 진출(19.4%)	
15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50년 후 경희대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인간다움(15.4%)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국제)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 분	일 시
개설과목 분	2015.05.01(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점교류생	추첨기한: 2015.05.27(수) 17:00 까지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5.05.11(화) 10:30 ~ 06.05(월)
폐강과제	2015.05.16(화) 12:00 (1차) 2015.06.19(금) 09:00 (2차)
동문급 남부시간	2015.06.16(화) ~ 06.18(목) 16시
(폐강과제 수강생)	2015.06.16(화) ~ 06.17(수) 17시
수강신청기간	2015.06.22(일) ~ 07.13(월)
성적발령(정기)	2015.07.15(수) ~ 07.16(목)

2. 수업시간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1기)	교시 1교시 10:00~11:50 교시 2교시 13:00~14:50	국제 캠퍼스	1학점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학점	교시 1교시 10:00~11:50 교시 2교시 13:00~14:50		3학점	교시 1교시 09:00~11:45 교시 2교시 13:00~15:45		
	3학점						

* 수업시간표 조회 : 2015.05.01(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다. 강의계획서 조회 : 2015.05.01(금)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획학기 시간표'

나. 수강신청 링크 클릭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1) 계절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에 가능 가능

2) 단,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충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 목 선택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학적 → 등록메뉴 중 [계

절학기 등록금 인내] 칠판

5. 수강신청 조작 : 2015.05.01(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다. 강의계획서 조회 : 2015.05.01(금)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획학기 시간표'

나. 수강신청 링크 클릭

6.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1) 계절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

로그램과 동시에 가능 가능

2) 단,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충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 목 선택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1) 계절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

로그램과 동시에 가능 가능

2) 단,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충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 목 선택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1) 계절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

로그램과 동시에 가능 가능

2) 단,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충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 목 선택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1) 계절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

로그램과 동시에 가능 가능

2) 단,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충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p